

‘2025 년 전국 룡선시합 초청대회’ 장춘 이통하서 성황리에



▲ 룡선시합의 한 장면

‘2025 년 전국 룡선시합 초청대회’가 5 월 31 일 장춘 이통하에서 개최되었다. 길림성 ‘체육 + 문화관광’ 대표 행사인 본 대회는 길림성체육국과 장춘시정부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전국 28 개 룡선시합팀의 물보라 경쟁 장면이 수만명 관중의 응원소리가 이어졌다. 이번 룡선시합은 장춘, 길림, 대안 3 개 지역 련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경기장인 장춘에서는 300 메터 직선 경주외에도 정민강운동, 문화공연, 쫄즈 및 오색실종 만들기 등 5 대 체험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관중들로 하여금 전통문화를 생생히 느끼게 했다. / 길림일보

‘즐거운 연길대무대’ 5 월 31 일 개막



▲ 공연 현장

연길시의 대표적인 시민문화 브랜드 행사인 ‘즐거운 연길대무대’가 지난 5 월 31 일 저녁 청년광장에서 성대히 막을 올렸다. 수많은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구경하면서 뜨거운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경쾌한 리듬의 제 6 차 <연길 대중무>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무대에서 선수들은 화려한 전통 복장을 차려입고 생동감 넘치는 춤사위로 관객들의 열기를 한껏 달궜다. 연길시문화관은 전문 예술인들의 정교한 공연과 시민 예술단체의 창작 작품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전반 공연은 조선족 무용의 우아함과 활력으로 문화 정수를 전했다. 민

족음악에 또한 고향에 대한 연변인들의 사랑이 깊게 담겼다. 가야금, 장구 등 전통악기의 선율과 현대 조명이 어우러져 관객들을 민족문화의 향연에 흠뻑 빠지게 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즐거운 연길대무대’ 행사는 6 월 5 일까지 매일 저녁 7 시에 청년광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앞으로는 전 시 각 가도와 문화단체의 예술팀들이 출연해 연길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공연을 선물하면서 ‘문화해민’을 착실히 실현해나갈 타산이다.

/ 글 주동기자

/ 사진 연길시당위 선전부



전통 이어가고 미래 열어나가는 문화축제

— 제 30 회 대련시 조선족 민속문화예술 전시공연 성료

‘제 30 회 대련시 조선족 민속문화예술 전시공연’이 지난 5 월 31 일 대련시 해남백천 대련국제조각공원에서 개최되었다.

대련시문화관광국에서 주최하고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에서 주관한 이 행사에 대련시문화관광국, 대련시정부 관련 지도자들과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산하 여러 예술단체, 한국 임실필봉농악보존회, 연길, 할빈, 묵단강, 안산, 밀산, 계서 등 형제 문화관의 지도자, 대련시 조선족 기업인, 사회자성인 2,000 여명이 참가했다.

1953 년에 설립된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 (관장 황호철)은 7만여명 대련시 조선족들의 문화생활을 다채롭게 하기 위해 1995 년부터 해마다 조선족 민속절을 개최하고 성악, 무용, 기악, 서예, 미술, 활쏘기 등 감습반을 조직하여 조선족 문화의 활성화와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대련시인민정부



부비서장 장효광은 이번 활동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면서 “광범한 조선족 군중들이 문화전통을 이어가고 미래를 열어가는 리념으로 조선족 전통문화의 새 장을 열어감으로써 중화민족공동체 발전에 새로운 기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개막식 정품 문예공연에서 연변가무단 방성길의 독창 <고향길에

올리는 소방울소리>,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 리설화의 독창 <우리 사는 세상>, 화룡시문화관 채련의 독창 <월광 도라지>,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 김미령의 독창 <새타령> 등은 경쾌하고 은은한 선율로 관중들의 심금을 울려주었으며 한국 임실필봉농악보존회의 농악무, 해변장백정무용단의 무용 <단풍의

환희>, 대련꽃노을민악대와 쾌락협회의 무용 <봄의 고향>, 룡녕사범대학 음악학원 무용팀의 무용 <황금파도> 등 종목들은 격정에 넘치는 반주와 물찬 제비를 방불케 하는 춤사위로 관중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제 2 부 군중광장무 공연에서는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감정자분회, 사하구분회, 개발구분회, 춘전분회, 아리랑예술단, 금주구로인협회예술단에서 정채로운 종목들을 선보이며 전반 공연을 고조로 이끌었다.

이날 또한 단오명절이라 할매, 김치, 순대, 국수를 파는 장사군들이 난전을 펼치면서 조선족의 전통음식문화를 선보였고 한편에서는 장기와 활쏘기, 옷돌이에 성수나 사람들이 명절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 동창생, 친척들은 해질녘까지 춤추고 노래 부르며 단오절을 즐겁게 보냈다.

/ 리삼민특약기자



단오명절 씨름판 흥성흥성



단오명절엔 흥성대는 씨름판을 빼놓을 수 없다. 2025 년 단오절을 맞아 연길시조선족민속원에서는 ‘단오절 연변주 민족씨름경기’가 열렸다. 조선족의 전통 민속 운동으로 줄곧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만큼 이번 경기는 단오절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전통문화 계승에도 목적을 두었다.

힘과 정신력 그리고 기술의 대결인 민족식 씨름경기는 이날 연길시조선족민속원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조선족 전통민속문화인 민족식 씨름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주목받았다. 이날 유택군이 씨름경기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인민페 1 만원과 황소를 상으로 받았다.

/ 박경남특약기자



문명으로 도시를 밝히고 단결로 힘을 모으자

문명행위 촉진 행사 개막식 및 단오절 문화공연 연길시

지난 5 월 29 일, 연길시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하고 연길시 공원가두, 도시관리행정집법국, 세시대 문명실천선전교양중심에서 공동 주관한 ‘문명으로 도시를 밝히고 단결로 힘을 모으자’는 주제의 연길시 문명행위 촉진 행사 가동식 및 단오절 시민문화공연이 연길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연변주 문명행위

촉진 조례>를 깊이있게 실천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실천하면서 문명양성 교양과 문명실천, 문명장건을 강화하기 위한 데 취지를 두었다.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연길시 문명도시 홍보 영상을 함께 관람하고 문명관광, 문명출행, 문명식탁, 문명경영, 인터넷 문명리용, 문명봉조, 문명가정, 반려견 문명양육 등을 돌

려싸고 각 분야 대표들이 시민들에게 문명행위 참여를 호소하였다. 이들은 더 많은 시민들이 문명행위 촉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연길시의 문명도시 조성에 힘을 보태줄 것을 바랐다.

최근 들어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유행으로 되었지만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거나 배변후 처리하지 않는 등 비문명

적인 행동이 사회 조화와 도시 문명수준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행사에서는 반려견 문명양육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동물병원 전문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려견 문명양육 강좌를 진행해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알렸다.

이날 또 단오절 맞이 시민문화공연 공원가두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 연길시당위 선전부

홈팀 응원 앞장 ! 연변대학 예술학원의 화려한 무대



6 월 1 일,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열린 2025 중국축구 갑금리그 제 11 라운드 경기 현장에서 조선족 전통복장차림을 한 연변대학 예술학원 학생들이 머리에 꽃관을 쓰고 물동이를 이고 관객들 앞에서 우아한 자태로 조

선족 특색의 물동이춤 공연을 펼쳤다. 공연은 경기장의 눈부신 한 장면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관중들이 축구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동시에 예술의 매력과 문화 전승의 의미를 느끼게 했다.

/ 김파기자

